


시행하도록 했다. 지원계획에는 도내 미세먼지 측정과 정보안 내 사업, 발전소·직화구이음식점·차량·공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적정유지·관리·개선 사업 등이 포함됐다.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련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경기도 미세먼지저감 위원회'를 두고,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해 주민 제안을 공모해 포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원도

道花 : 철쭉


道木 : 잣나무

도청주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도지사 : 최문순(崔文洵)

道鳥 : 두루미

캐릭터 : 반비



개 관

연혁 한반도의 동북쪽 중간지역에 위치한 강원도는 남한강, 북한강, 낙동강이 발원하고 금강산,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치악산 등 유명한 산들이 위치해 있다.

고조선시대에는 예맥으로 불렸다. 삼국시대에 영서지역이 백제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기도 했으나, 고구려의 세력이 강했던 3~5세기경에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 551년 신라 진흥왕 때 신라의 영토가 됐다. 685년(신문왕 5년) 새로운 지방행정조직인 9주가 설치되면서 강원도 지역은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영서의 삭주와 영동의 명주로 나뉘었다.

1178년(고려 명종 8년) 함경도와 강릉 일대의 해안지방을 연해명주도(沿海溟州道), 춘천·철원 일대의 영서지방을 동주도(東州道)라 개칭했다.

1395년(조선 태조 4년) 영동의 강릉도와 영서의 교주도를 합해 '강원도'라고 처음 부르게 됐다. 1895년(고종 3년) 8도제(八道制)가 폐지되면서 강원도는 2부(府)로 나뉘었다. 이 때 강릉과 춘천에 관찰부를 각각 두고 원주·평창·영월·정선 4군을 충주부에 이속시켰다. 1896년 13도제 실시로 충주부에 이속됐던 4군이 강원도로 돌아왔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흡곡은 통천군, 고성은 간성군, 금성은 김화군, 안협은 이천군, 평해는 울진군에 병합됐다. 1919년에는 간성군을 고성군으로 개칭했다. 읍면제 실시에 따라 1931년 춘천시·강릉면·철원면이, 1938년 원주면·삼척면, 통천군 고저면이, 1940년 주문진면이, 1942년 양양군 속초면이 각각 읍으로 승격됐다.

1949년 춘천이, 1955년 원주·강릉이 각각 시로 승격됐다. 1960년 1월 1일 영월면이 영월읍으로, 삼척군 상장면이 장성읍으로 승격됐다. 1963년 1월 1일 울진군이 경상북도로 편입되고 속초읍이 속초시로, 삼척군 소달면이 도계읍으로, 흥천면이 읍으로 승격됐으며, 철원군 신서면이 경기도 연천군에 편입돼 강원도는 4시 15군 10읍 101면을 관할하게 됐다.

1980년 12월 1일 명주군 목호읍과 삼척군 북평읍이 통합돼 동해시가 됐고, 정선군 신동면, 철원군 동송면, 삼척군 원덕면이 각각 읍으로 각각 승격됐다. 1981년 7월 1일 삼척군 장성읍과 황지읍을 통합해 태백시로 개칭했다. 1983년 2월 15일 양구군 해안면, 인제군 삼남면, 평창군 용평면이, 1985년 10월 1일에는 정선군 고한읍이 신설됐다.

1986년 10월 1일 삼척읍이 시로 승격됐고, 1989년 1월 1일 원성군이 원주군으로 개칭된 데 이어 1992년 2월 1일 춘성군이 춘천군으로 개칭됐다.

1995년 1월 1일 춘천시와 춘천군, 원주시와 원주군, 강릉시와 명주군, 삼척시와 삼척군이 통합됐다. 1998년 5천 명 미만 과소동 39개를 통·폐합했다.

통합시 출범 이후 원주시가 2007년 10월 15일 인구 3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춘천·원주·강릉시가 인구 30만 명 안팎으로 성장해 강원도 내 3대 중핵도시를 형성했다.

면적·행정구역 총면적은 2만569km²이며, 이 가운데 휴전선 이남이 82%인 1만6천875.04km²로 남한면적 10만363.72km²의 16.8%에 해당한다. 전체 면적의 81.6%인 1만3천774.4km²가 임야이며, 농경지는 9.4%에 해당하는 1천593.58km², 기타 8.9%로 구성돼 있다.

경지면적은 밭 66,567ha, 논 37,763ha로 논밭의 비율은 논이 36.2%, 밭이 63.8%이며 농가 호당 면적은 1.44ha이다.

지리적으로는 한반도 중앙부 동쪽의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크게 영서와 영동으로 구분되며, 동서로 약 150km, 남북으로 약 243km에 달하며, 해안선의 길이는 402km이다.

행정구역은 1995년 1월 1일 법률 제4774호로 7시, 11군으로 개편돼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187읍·면·동, 4천254통·리, 2만2천254반으로 구성돼 있다.

강원도 면적·가구·인구

(2017년 12월 말 현재)

| 구분 | 면적(km ²) | 가구(세대) | 인구(명) |
|-----|----------------------|---------|-----------|
| 합 계 | 16,875.0 | 700,265 | 1,550,142 |
| 춘천시 | 1,116.4 | 118,450 | 280,514 |
| 원주시 | 868.3 | 145,521 | 341,337 |
| 강릉시 | 1,040.7 | 95,963 | 213,952 |
| 동해시 | 180.2 | 40,730 | 92,851 |
| 태백시 | 303.5 | 21,889 | 45,888 |
| 속초시 | 105.7 | 37,772 | 82,273 |
| 삼척시 | 1,187.0 | 33,863 | 68,514 |
| 흥천군 | 1,820.3 | 32,467 | 70,340 |
| 횡성군 | 998.1 | 21,777 | 46,281 |
| 영월군 | 1,127.6 | 20,715 | 40,067 |
| 평창군 | 1,463.9 | 21,008 | 43,092 |
| 정선군 | 1,219.8 | 19,554 | 38,173 |
| 철원군 | 889.5 | 21,583 | 47,185 |
| 화천군 | 908.9 | 13,065 | 26,022 |
| 양구군 | 705.8 | 11,340 | 23,835 |
| 인제군 | 1,645.2 | 15,523 | 32,582 |
| 고성군 | 664.1 | 15,519 | 30,029 |
| 양양군 | 630.1 | 13,526 | 27,207 |

인구·가구 2017년 1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외국인 제외)는 70만265세대 155만142명이며, 성별로는 남자 78만635명(50.4%), 여자 76만9천507명(49.6%)이다.

별로는 일반회계가 4조9천195억원, 특별회계가 4천1369억원이다.

재 정

2018년도 총예산 규모는 15조2천9백33억원으로, 도청이 5조3천332억원이고, 18개 시·군이 9조9천600억원이다. 회계

2018년도 강원도 세입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항 목 | 예 산 액 | | |
|-------------|-----------|-----------|---------|
| | 계 | 일반회계 | 기타 특별회계 |
| 합 계 | 5,333,242 | 4,919,546 | 413,696 |
| 지방세 | 982,000 | 982,000 | - |
| 보통세 | 784,100 | 784,100 | - |
| 취득세 | 515,000 | 515,000 | - |
| 등록면허세 | 34,100 | 34,100 | - |
| 지방소비세 | 235,000 | 235,000 | - |
| 목적세 | 190,400 | 190,400 | - |
| 지역자원시설세 | 42,400 | 42,400 | - |
| 지방교육세 | 148,000 | 148,000 | - |
| 2017년도 수입 | 7,500 | 7,500 | - |
| 세외수입 | 226,322 | 180,682 | 45,640 |
| 경상적 세외수입 | 25,233 | 24,469 | 764 |
| 임시적 세외수입 | 201,089 | 156,213 | 44,876 |
| 지방 교부세 | 1,026,512 | 1,026,512 | - |
| 보조금 | 2,639,764 | 2,438,960 | 200,804 |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458,644 | 291,392 | 167,252 |

2018년도 강원도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항 목 | 예 산 액 | | |
|-----------|-----------|-----------|---------|
| | 계 | 일반회계 | 기타 특별회계 |
| 합 계 | 5,333,242 | 4,919,546 | 413,696 |
| 일반공공행정 | 452,365 | 452,302 | 63 |
| 공공질서 및 안전 | 321,347 | 215,223 | 106,124 |
| 교육 | 275,563 | 230,911 | 44,652 |
| 문화 및 관광 | 718,049 | 718,049 | - |
| 환경보호 | 286,797 | 286,797 | - |
| 사회복지 | 1,485,913 | 1,232,756 | 253,157 |
| 보건 | 93,879 | 93,879 | - |
| 농림해양수산 | 575,264 | 575,264 | - |
| 산업·중소기업 | 162,580 | 153,759 | 8,821 |
| 수송 및 교통 | 241,121 | 241,121 | - |
| 국토 및 지역개발 | 292,085 | 292,085 | - |
| 과학기술 | 2,146 | 2,146 | - |
| 예비비 | 26,931 | 26,791 | 140 |
| 기타 | 399,202 | 398,463 | 739 |

주요 업무추진 실적

1.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 완료

- ▲ 경기장, 진입도로, 숙박·교통 등 대회지원 인프라 구축 완료
- ▲ G-1년, G-200일, G-100일 기념행사 개최로 범국민 참여 열기 확산

2. 「강원도형 일자리 3대 핵심시책」 본격 추진

- ▲ 청·장년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452명),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추진(483명)
- ▲ 구직활동수당(1만4천973명), 취업성공수당(4천697명) 등 일자리 특별지원 실시

3. 「강원경제 성장동력」 구체화

- ▲ 1천47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2016년 대비 14% 증가)
- ▲ 전기자동차, 수소산업, 생명건강 등 첨단 융복합 신사업 발굴
- ▲ 자동차 튜닝 클러스터, 3D프린팅 거점센터 등 전략산업 기반 고도화

4.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강원경제영토」 확장

- ▲ 16억1천500만 달러 수출(2016년 대비 7.7% 증가)
- ▲ 6월 베트남과 우호협력 체결 및 베트남본부 신설로 국외 본부 확대
- ▲ GTI박람회 성료(수출상담 975건 6억7천940만 달러, 수출 계약 391건 1억4천655만 달러)

5. 전국 제1의 「강원관광·문화·체육 위상」 제고

- ▲ 올림픽 관광객 맞이 준비 완료, 문화올림픽 기반 조성(올림픽 아트센터, 평창 겨울음악제 등)

6. 「공항 및 크루즈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 ▲ 양양국제공항 7개 노선 1천745편 운항, 속초항 크루즈 입항(11회, 2만명)

7. 따뜻함과 공동체 정신이 더해진 「희망복지」 구현

- ▲ 복지예산 확대(1조4천780억원으로 2016년 대비 7.4% 증가)
- ▲ 어르신 일자리 4만천 개 지원, 도내 전 경로당 에어컨 설치 등

8. 전국 반나절 생활권 구축을 위한 「교통망」 확충

- ▲ 6월 서울~양양 동서고속도로 개통, 12월 서울~강릉 고속철도 개통(12월)
- ▲ 12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확정 완료

9. 강원 「농·수·축산업 경쟁력」 제고

- ▲ 10월 전국 최초로 고교 전 학년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 ▲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3개 사업, 110억원), 해삼·참가리 비 씨뿌림양식 육성, 강원명태산업 광역특구 확대 등

10. 현재 중심의 「재난 대비 태세」 확립

- ▲ 현장훈련 특별점검 실시 등 평창 동계올림픽 안전 대비 태세 확립
- ▲ 999억원 투자해 80개 재난취약지구 시설 개선

산업

농림수산업 농가 수는 7만2천624가구로 전국 농가의 6.8%를 차지하고 있고 원주시, 홍천군, 강릉시 순으로 농가 수가 많다. 가구당 경지면적은 철원군이 가장 넓고 동해시가 가장 좁았다.

임야면적은 2017년 기준 137만1천96ha로 도 전체면적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임업인구는 1만7천921명으로 우리나라 임업인구의 8.8%에 해당한다. 주요임산물로는 용재(나무생산), 산나물, 수실, 약용버섯 등이다.

해안선은 402km로 전국의 2.68%에 해당하고, 어업인구는 2016년 말 기준 2천549가구, 6천118명으로 전국 어업인구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 어선은 2천805척으로, 5만52톤에 2천587억 원의 어획고를 올렸다. 이 중 붉은대게가 총어획량의 26%를 차지했고 다음은 오징어, 도루묵, 청어 순이었다. 도내 항만과 어항은 총 64개소로 무역항 6개소(국가관리 1, 지방관리 5), 국가어항 14개소, 지방어항 14개소, 어촌정주어항 23개소, 소규모 항포구 7개소이다.

광업 주요 생산 광물로는 철, 석회석, 석탄, 규석, 고령토 등이 있다. 철은 국내에서 강원도에서만 생산되고, 석회석 생산량은 국내 최대이다. 최근 도내에서 고품위 규석 광상이 확인돼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수출입 2017년 기준 수출이 17억8천만 달러이고 수입은 34억6천만 달러로 수출입지수는 16억8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품은 의약품, 합금철, 의약품 등이며, 주요 수출국은 미국, 일본, 중국 등이다.

사회

주택 도내 주택보급률은 2015년 기준 106.7%로 16개 광역 시도 중 5번째로 높았다. 전체 건축물(동수 기준) 중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비중이 67%였다.

교통 2017년 기준 등록 차량은 총 74만5천959대이다. 휘발유 차량비율이 약 43%로 가장 높았고 경유와 LPG차량 순이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56만825대, 승합차 3만815대, 특수차량은 2천71대, 화물차량은 15만1천608대이다.

보건·사회복지 2017년 기준 의료기관은 총 1천588개소로 병원급 이상이 100개소, 의원급이 1천488개소이며, 약국은 646개소이다. 의료기관 및 약국은 춘천시(444개소), 원주시(559개소), 강릉시(313개소), 속초시(158개소)에 전체의 66% 정도가 집중돼 있다.

아동복지시설은 총 208개소로 춘천시에 35개소, 원주시에 41개소, 강릉시에 27개소 등이 있다. 장애인은 총 9만9천959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약 6%를 차지하고 있다.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은 모두 68개소이며 수용가능인원은 1천666명이다.

도내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원주시가 437개소로 가장 많으며, 춘천시에 352개소, 강릉시에 303개소가 있고 군 지역은 평균 140개소를 보유하고 있다.

환경 도내 하수발생량은 원주시 10만4천814톤, 춘천시 7만5천708톤, 강릉시 6만7천281톤 순으로 많았고, 일 쓰레기 배출량은 강릉시 897.5톤, 원주시 785.5톤, 춘천시 507.4톤 순이었다.

교육·문화

학생 2017년 말 기준 도내 학생 수는 18만5천934명이다. 유치원생 1만7천438명, 초등학교생 7만5천722명, 중학생 4만1천274명, 고등학생 5만599명, 특수학교 학생 901명으로 중고생 비율이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교원 수는 1만6천820명이다.

축제 총 68개의 지역축제(문화관광예술축제)가 있다. 유형별로는 문화예술축제가 21개, 전통민속축제가 3개, 지역특산물축제가 17개, 생태자연축제가 17개, 기타축제가 24개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축제는 6개이며, 대표축제로 화천산천어축제를 비롯해 평창효석문화제, 원주다이나믹댄싱카니발, 유망축제로 춘천국제마미축제, 정선아리랑제, 강릉커피축제, 황성한우축제, 삼척정월대보름제, 고성명태축제, 원주한지문화제, 양양연어축제, 로맨틱춘천페스티벌, 인제빙어축제, 정선고드름축제, 홍천강인삼송어축제, 대관령눈꽃축제, 평창송어축제, 태백산눈축제가 있다.

관광객 2017년 도내 관광지 누적 방문객은 총 1억2천296만 6천 명으로 2016년 대비 6.8% 증가했다. 내국인이 1억2천14만 1천 명, 외국인이 282만5천 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강릉시에 1천529만8천 명이 방문해 가장 많았으며, 속초시 1천439만2천 명, 춘천시 1천222만8천 명 순이었다.

문화재 도내 지정문화재는 총 649건으로 국가지정문화재 192건, 강원도지정문화재 274건, 강원도문화재자료 143건, 등록문화재 40건이 있다. 국가지정문화재로는 국보 10건, 보물 79건, 사적 18건, 천연기념물 44건, 국가민속문화재 11건, 명승 25건, 국가무형문화재 4건이 있다. 도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161건, 무형문화재 29건, 기념물 80건, 민속자료 4건이다. 전통사찰은 48개소가 있다.

문화시설 2017년 기준 문화원 18개소와 문화예술회관 20개소, 공공박물관 100관(국립 3, 공립 47, 대학 5, 사립 45), 공공미술관 17개소(공립 4, 사립 13), 공공도서관 56개소(지자체 34, 교육청 22), 작은영화관 9관이 운영되고 있다.

의회활동

원 구성

〈의장〉 김동일

〈부의장〉 권혁열, 김성근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오세봉),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장세국),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조영기), 농림수산업위원회(위원장 진기엽),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박길선), 교육위원회(위원장 남경문)

〈정당별 의석〉 자유한국당 37, 더불어민주당 6, 무소속 1명이다.

의회운영 2017년 회기운영 일수는 총 9회 126일로 정례회가 2회 53일간, 임시회가 7회 73일간 개최됐다.

총 의안처리 건수는 230건으로 2016년(255건) 대비 9.8% 감소했다. 조례안 132건, 예·결산안 15건, 동의·승인안 33건, 건의·결의안 20건, 규칙·기타안 30건을 승인·처리했다.

행정사무감사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67개 기관을 대상으로 993건의 감사 자료를 요구해 755건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306건을 시정·처리 요구했다. 알펜시아 시설 무상사용 관련 실질적인 대책 마련, 동계올림픽 불 조성 및 올림픽 이후 성장방안 마련, 엘엘개발 감사 및 레고랜드 조성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시한 설정, 도내 학력 향상 방안 등 도의 주요현안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루어졌다.

5분 자유발언,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총 25명의 의원이 58회에 걸쳐 5분 자유발언을 했다.

3회(3월·6월·10월) 8일간 27명의 의원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150건의 질문을 했다. 도정에 관련된 사항이 111건, 교육행정에 관련된 사항이 39이었다.

서면질문 처리 247회에 걸쳐 총 1천138건의 서면질문을 했다. 이중 도정과 관련한 사항이 771건, 교육행정과 관련한 사항이 367건이었다.

특별위원회별 활동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접경지역에 남북협력기금 사용과 규제완화, 관광자원 및 주민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했다.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는 폐광지역에 경제자립형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및 제반 대책 강구,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는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경기장 건설 및 교통망 확충을 지원하고 대회 불 조성을 위한 도와와 간담회, 타 시도 홍보, 올림픽 준비상황 점검 등을 전개했다.

분권특별위원회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전국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연대를 추진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해 추진하였으며, 토론회 개최,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오색삭도특별위원회는 오색삭도 사업과 지역발전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오색삭도 설치사업 촉구 결의안 및 사업관철을 위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비대위 상경집회에도 동참하는 등 오색삭도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도의회 3대 의정방침의 실천 '강원도민의 행복, 강한 의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도민을 편안하게 모시는 「섬기는 의회」, 도민의 행복을 위한 「일하는 의회」, 도민소통을 위해 다가가는 「가까운 의회」를 3대 의정 목표로 설정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운영, 맞춤형 의정활동 추진 등으로 도민 밀착형 생활의정 실천 및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했다.



충청북도



道花 : 백목련 **道鳥** : 까치

道木 : 느티나무 **캐릭터** : 고드미, 바르미

도청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도지사 : 이시종(李始鍾)

개 관

연혁 충청북도는 서북으로 차령산맥, 동남으로 소백산맥의 중간에 자리 잡고 있다. 삼한시대에는 마한의 영토였다. 삼국시대에 중부는 백제, 남부는 신라, 북부는 고구려가 점유해 삼국 간 세력다툼의 각축장이었다.

고려 성종 때(995년) 중원도였다가 예종 원년(1106년)에 처음 충청도로 불렸다. 명종 2년(1171년)에 양광도로 바뀌었다가 공민왕 5년(1356년)에 다시 충청도로 환원됐다. 조선 태조 때(1395년) 충주·청주·공주·홍주 소속령이던 군현을 합쳐 충청도를 만들고 충주에 관찰사를 두었다. 고종 33년(1896년) 8월 4일 실시된 13도제에 따라 충청북도가 설치돼 충주에 도청을 두었다가 1908년 청주로 이전했다.

1946년 청주읍이 부로 승격돼 1부 10군 3읍이 됐다. 1949년 청주부가 시로 바뀌었다. 1956년 충주읍이, 1980년 체천읍이 시로 승격됐다. 1990년 출장소가 설치됐던 증평이 2003년 독립자치단체인 증평군으로 승격됐다. 1995년에 청주시 동부출장소가 상당구로, 서부출장소가 흥덕구로 승격됐다.

2012년 6월 27일 청주시와 청원군이 행정 사상 처음으로 주민자율에 따라 통합을 결정해 2014년 7월 1일 통합 청주시로 출범했다. 2012년 7월 1일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금호리·등곡리·노호리·문곡리·행산리·산수리·갈산리가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됐고, 청원군 부용면 외천리는 남이면 부용외천리

충청북도 면적·가구·인구

(2017년 12월 31일 현재)

| 구분 | 면적(km ²) | 가구(세대) | 인구(명) |
|-------|----------------------|---------|-----------|
| 합 계 | 7,407.31 | 692,140 | 1,594,432 |
| 청 주 시 | 940.28 | 346,000 | 835,590 |
| 충 주 시 | 983.56 | 90,246 | 208,316 |
| 제 천 시 | 883.45 | 61,949 | 136,432 |
| 보 은 군 | 584.25 | 16,501 | 34,053 |
| 옥 천 군 | 537.11 | 23,290 | 51,766 |
| 영 동 군 | 845.72 | 24,132 | 50,240 |
| 증 평 군 | 81.83 | 16,694 | 37,783 |
| 진 천 군 | 407.26 | 32,898 | 73,677 |
| 괴 산 군 | 842.44 | 20,577 | 39,054 |
| 음 성 군 | 520.30 | 45,069 | 97,306 |
| 단 양 군 | 781.11 | 14,784 | 30,215 |

*인구 : 외국인 제외